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도덕보다 영성이 중요하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16-23절

Tag:

영성,도덕,율법주의,하나님의마음,아버지의마음,신약성경,마태복음

16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18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20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यो

21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यो

22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 23:16-23)

도덕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 아니다.

법 보다는 도덕이 중요하고, 도덕 보다는 영성이 중요하다는 뜻.

법 보다 도덕이 더 큰 개념. 최소한 법만큼은 어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법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매우 인간적이며 적용의 범위도 협소하다. 또한 증거가 없으면 심증만으로는 정죄가 힘들다.)

그러나 도덕은 사적인 영역이다. 자신의 양심의 문제이다.
그리고 도덕과 양심에 대한 근거가 곧 영성이다.

영성은 곧 관계성이다. 나의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곧 영성이
다. 그래서 인격적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면 내게는 기독교 영성
이 작용한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양심이나 감정이나 행동은 하나님
의 만유인력의 테두리 안에 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인간은 소외되고 우상숭배와
귀신숭배에 빠진다.

이런 원리를 마음에 두고 말씀을 살펴보자.

16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
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나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맹세; 결단. 서원. 여기에서는 신앙적 서원을 말함.

16절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서원이 더럽혀졌음을 지적하심.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16절은 헌금과 관련된 맹세를 말함.

사람들은 흔히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 들이려고 하였
다.

그러나 순전한 의도에서의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영혼과 영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애뜻한 사랑표현인 셈.

서원을 지키는 것은 그러므로 어기는 것이 곧 배신을 의미.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신앙 과시용으로 맹세를 사용했다. 하나님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또는 동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쉽게 서원하고는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핑계를 댔다. 왜냐면 과시용이니까.

그러나 성전의 금을 위한 맹세는(헌금 서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규칙까지 만들게 되었다.

결국 성전의 금 보다는 성전이 더 거룩한데, 주객이 전도된 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보다는 금이나 돈이 더 주도적인 셈이 됨.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성 보다는 mammon과의 영성이 작용한 셈.

-그들의 영성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들이 많은 율법은 지킬지언정,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차라리 아무런 맹세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맹세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맹세의 무의미함을 지적하신 것.(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맹세만 맹세다. 영성이 없는 맹세는 오히려 거짓말일 뿐이다.)

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에는 율법 정신이 있다. 23절에는 그것을 곧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설명하였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지키라는 의미에서 율법이다. (도덕보다 구속력은 크다.)

1:12=영성 (관계성이 커짐)

1:120=도덕

1:1200=율법 (강제성이 커짐) 검찰에게는 인정이 없다. 재판장에게는 약간 있다.

영성-도덕-율법의 속성은 긴밀하다. 영성에 따라 도덕과 율법의 성질이 달라진다. 도덕과 율법은 행동으로 보여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도덕과 율법으로 가늠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영성은 종교에 의해서 확연히 구분되었다. 종교는 달라

도 도덕과 율법이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로 분류될 수는 있으나, 그 행위의 목적의식이 다르다.

23절에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과 정의(일한 값을 주어라), 긍휼(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어라), 믿음(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에 관한 율법을 비교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상추의 십일조를 드리는 율법은 철저히 하면서 왜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에 관한 율법은 버리느냐? 푼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기 쉽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아깝게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처럼 기록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더 중한 바라고 말씀하셨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란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하다. 이런 가치감각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이 곧 영성이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 중요한 영성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커질수록 영성이 커진다. 마치 행성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중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영성이 커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며, 그 영성이 진실로 하나님의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율법에서 명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교회가 클수록 율법에 의존하게 되고, 교회가 작을수록 영성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교회가 커질수록 쇼맨십도 커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작을수록 이해력이 커져가는 경향이 있다. 눈치만 봐도 다 이해가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을 키우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